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서로의 짐을 져주는 마음으로

- 갈 6:2 -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종려주일】
(찬양: 140. 왕되신 우리 주께)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 김형욱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경배의 찬송 25. 면류관 벗어서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서운 꽃샘추위 속에서도 연둣빛 꽃봉오리는 움트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봄에 피는 꽃을 닮아 모진 바람에도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웃에게 다정한 미소를 전하고 정다운 말과 인사를 먼저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넉넉한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감격했지만, 주님은 나귀를 타고 고요히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함성에 섞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십시오. 참된 제자란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르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 42:11 인도자
▲ 교 독 문 129. 종려주일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김영호 장로
2부 응 답 송 반주자
2부 찬 양 149.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 함께
▲ 성경봉독 벧전 2:21-25 1부:인도자/2부:최영민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함 께

찬 양	I 기록한 성	마중물 찬양대
	II. 종려나무	청파 찬양대
말 씬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김기석 목사
거듭 기도		다 함께
2부 특 송	여 정	조항범 권사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아무 흠도 없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죽으심으로 의로운 길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목자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의 상처 입은 손과 발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먼저 가신 주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로움을 따르는 일이 주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삶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김재홍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재홍	윤성중	김민화	김형욱
헌금 계좌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십일조/월정헌금)	십일조/월정/주일, 기타	
	새마을금고 9002-2033-2892-7	(감사헌금)	감사/생일감사/추수감사/00감사	
	새마을금고 9002-1358-4805-8	(장학금)	청파장학회, 교회 교육	
	새마을금고 9002-2030-8023-7	(선교헌금)	선교, 미자립교회 후원	
	새마을금고 9002-2032-2714-0	(구제/녹색꿈헌금)	구제/긴급구호/녹색꿈/00지원	

